

## 대학 영어강독 수업에서의 기독교적 가르침의 사례 연구\*

박혜경\*\*

### 논문초록

기독교대학에서의 교육과정의 목적은 기독교대학의 설립목적과 사명에 부합해야 하며, 기독교 대학의 교수는 강의를 설계함에 있어서 대학의 설립목적과 기독교적 가르침의 통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기독교대학의 교수들은 전공영역과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기독교대학의 교육과정의 설계자로서의 교수의 소명의식과 세계관은 교과목의 목표를 결정하게 되며, 이어서 강의실에서의 교수·학습 활동을 규정짓는다. 본 연구에서는 한 기독교대학에서 전공 교과목인 영어강독 과목을 통해서 기독교적 가르침의 통합을 어떻게 시도하는지를 그 사례 연구를 통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기독교 학생들의 기독교적 가르침을 위한 목적 분류에 의거해서 기독교적 가르침의 목적을 학생들을 지적 범주, 분별력의 범주, 실천적 범주에서 통합적으로 가르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책임 있고 섬기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구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반 브루멜른의 기독교적 가르침의 네 가지 구성요소인 지도하기, 구조화하기, 펼쳐 보이기, 능력 부여하기에 의거하여 영어강독 수업을 설계하였다. 확장형 강의계획서에서부터 교재 선정, 강독과 학습을 위한 다양한 활동 들을 통해서 기독교적 가르침의 통합을 시도한 결과, 영어강독 수업에서의 기독교적 가르침의 통합은 학생들의 기독교 세계관의 형성과 삶에의 적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학생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기독교적 가르침의 통합 사례가 기독교 대학에서의 영어강독 수업을 포함한 영어전공 교육과정에서 기독교적 가르침의 통합을 시도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주제어 : 기독교적 가르침, 영어강독 수업, 수업설계, 교수·학습, 기독교대학

---

\* 본 논문은 2015년도 한동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한동글로벌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

2016년 4월 30일 접수, 5월 19일 최종수정, 6월 1일 게재확정

## I. 서론

대학의 최초 모형은 그리스의 피타고라스 조합과 플라톤의 아카데메이아 학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모든 지식은 보편적인 것이다.”라는 말에서 의미하는 과학적 지식이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의 대학을 지배하고 있다. 청교도들이 신앙적 결단으로 세운 대학의 대표적인 예가 하버드대학<sup>1)</sup>, 예일대학<sup>2)</sup>, 그리고 프린스턴대학<sup>3)</sup>이다. 하지만 초기 설립자들의 기독교정신과 교육의 목표는 세속화의 물결 속에 사라지거나 변질되었다. 하버드대학의 문장에는 진리(Veritas)라는 단어가 있는데 실제로 하버드의 대학인들은 신앙의 눈을 떼어버리고 오로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이라는 한쪽 눈으로만 진리를 찾고, 세상을 보려고 한다. 이처럼 오늘날의 대학사회는 사실상 지식의 근원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에게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다. 무신론자 또는 세속주의자들에게 의해 중립적, 과학적, 이성적 학문 연구와 교육에만 가치가 부여되는 오늘날의 대학에서는 가르침과 배움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서실 자리가 없는 것이다. 결국, 대학은 진리의 근원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진리로부터의 탈선의 현장으로 탈바꿈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학문만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인식론이 지배하는 중에도 독특한 시각을 가진 소위 배타주의자들(particularists)의 도전은 기독교 학자들과 기독교 교육자들에 의해 지속되고 있다(Wolterstorff, 2004: 226). 대표적인 기독교 교육

---

1) 하버드대학은 설립 초기에 존 하버드 목사(Rev. John Harvard)의 공적을 기려 교명을 변경했고 초기의 설립사명문(1643년)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었다: “Let every student be plainly instructed and earnestly pressed to consider well that the main end of his life and studies is to know God and Jesus Christ which is eternal life, John 17:3, and therefore to lay Christ as the only sound foundation of all knowledge and learning.”

2) 예일대학은 1718년에 코튼 메이더 목사(Rev. Cotton Mather)에게 영향을 받아 엘리후 예일(Elihu Yale)이 낸 기부금으로 세워졌고 그 교육목적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Youth may be instructed in the Arts and Sciences, who through the blessings of Almighty God may be fitted for public employment both in Church and Civil State.”

3) 프린스턴대학 또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1746년 설립되었다. 초기 총장이었던 존 위더스푼 목사(Rev. John Witherspoon)는 이렇게 선포했다. “Cursed be all learning that is contrary to the cross of Christ.”

실천가인 파커 팔머(Parker Palmer)는 많은 사람들이 지성의 눈으로만은 볼 수 없는 실재를 볼 수 있는 마음(heart)의 눈을 떠가고 있으며, 우리는 “온전한 시각(wholesight)”, 즉 지성의 눈과 마음의 눈이 하나가 되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Palmer, 1993: XXIII). 특별히, 기독교 학자와 교육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명 안에서 대학의 모든 교육과 연구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Malik, 1982).

외눈박이 지성의 눈을 지닌 엘리트 양성을 암묵적인 목표로 하는 일반대학들과는 달리, 기독교대학은 진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것(고린도후서 10: 5), 즉 세속적 대학교육의 대안이 되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캠퍼스의 전 영역에서 다음과 같이 영성, 지성, 인성의 통합을 이루는 가르침을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임하고 하늘나라의 표징을 경험하는 **믿음 공동체(영성교육)**
- 변질된 지식세계와 학문을 구속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질서에 대한 참된 이해를 추구하는 **기독교적 배움의 공동체(지성교육)**
-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러내는 동역자들의 **삶의 공동체(인성교육)**

사람을 양육하는 것을 공통의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기관인 가정, 교회, 학교 중에서 기독교 가정이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일차적인 소명을 가진 기관이라면,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장려하는 학문공동체로서의 일차적인 사명을 가지는 기관이다. 따라서 기독교대학은 다른 어떤 영역에서보다도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기독교대학에서의 영성교육, 지성교육, 인성교육을 별도의 교과목으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인 기독교적 가르침을 하나의 교과목 안에서 시도해보고자 한 교과목 설계와 운영 사례를 제시하는 것에 있다. 아울러, 영어강독이라는 전공 교과목을 통해서 기독교대학에서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 II. 교육과정의 계획자로서의 교수

### 1. 교수의 소명의식

월터스토르프는 기독교학교가 “피동적인 난민수용소 (reactive cities of refuge)”가 아니라 “적극적인 신병훈련소 (pro-active boot camps)”가 되어야 하며, 고등교육기관인 기독교대학은 세상의 각 영역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연구하고 학생들을 하나님의 인재로 키워내는 “장교 훈련 사관학교 (cadet officer training academy)”가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Wolterstorff, 2002: 86). 그러므로 기독교대학의 교수는 그 대학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자신의 소명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연구와 교육을 통해 추구하는 하나님 면전 의식(Coram Deo)의 자세를 견지하는 사관학교의 교관과도 같다.

무엇을 교육의 목적으로 할 것인가,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교과목의 설계는 전적으로 교수에게 달려있음을 감안할 때 그 교수가 지닌 관점과 경험, 의도와 선택들이 교육과정에 절대적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기독교교육학자인 반브루멜른은 교사들에게 주어진 소명은 현대 사회에서 증인이 됨과 동시에 교육과정 또한 그 소명에 부합하게 구성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한다(Van Brummelen, 1988: 23).

첫째, 기독교대학의 교수는 자신의 삶의 전 영역에서 제자도를 실천하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가장 최고의 교육은 본(modeling)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지성과 인식적 관점에 있어서 제자도를 겸손하게 추구하는 자이어야만 한다. “인식론적 회심(epistemological conversion)”이 없이는 현대 사회에서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기독교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세상을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교수가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해낼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Wolterstorff, 2004: 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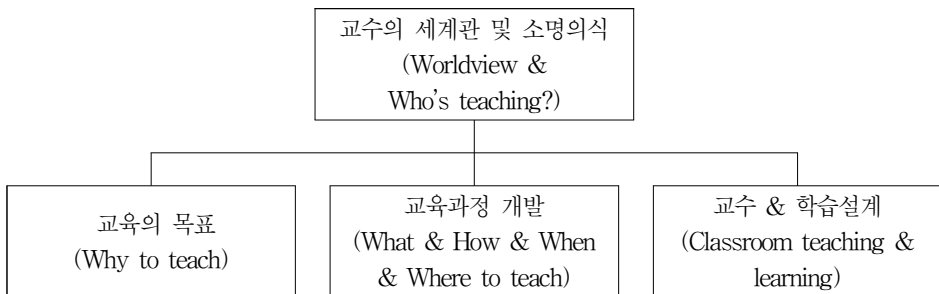
둘째, 기독교대학의 교수가 추구하는 교육과 연구의 목적은 각 전공영역을 불문하고 두 가지 공통의 지향점을 지녀야 한다. 창조세계의 각 영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학생들과 함께 발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로마서 1: 19, 20), 교육과 연구의 결과가 인류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사용되게 함으로써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다(마태복음 22: 39).

셋째, 기독교대학의 교수는 사람을 길러내며 형성하는 가이드의 역할에서도 탁월함

을 지향해야 한다(Van Dyk, 2000: 80).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기독교대학의 교수들 스스로가 기독교대학의 학부교육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점이 교수들로 하여금 세속적 교육의 모델을 그대로 답습하도록 한다. 기독교대학의 교수들은 다음과 같이 학생들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인식함으로써, 기독교적 가르침에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1) 학생들은 멘토를 찾고 있다. 2) 학생들은 지식보다 진리에 관해 듣고 싶어 한다. 3) 학생들은 삶의 모델로서 교수의 성공과 실패를 목격하고 싶어 한다. 4) 학생들은 성경의 법도가 어떻게 현실에 적용될 수 있을지 알고 싶어 한다. 5) 학생들은 보다 통합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방향제시를 구하고 있다.

## 2. 교수의 세계관과 가르침

토머스 그룸은 “교육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끌어 가고, 태도와 성향을 형성하고, 사상에 형태를 부여함을 의미한다.”고 했다(Thomas Groome, 1980: 21). 반 다이크는 “당신의 가르침은 당신이 무엇을 믿는가에 의해서, 또 당신이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주장했다(Van Dyk, 2000: 37). 인간의 상호 작용은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 기초하기 때문에 교육은 결코 가치중립적일 수가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가르친다는 행위는 가르치는 자의 믿는 바에 이끌리지 않을 수 없기에 언제나 “영적”인 것이다(Palmer, 1993: 43). 아래의 도식에서 볼 수 있듯이 가르치는 자의 세계관은 곧 교육의 목표로 이어지고,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교육과정의 중요한 요소들을 결정하게 되며, 결국 수업의 내용과 학습활동의 설계와 실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림1] 교수의 세계관과 교수·학습 설계

따라서 교수가 어떠한 세계관과 소명의식으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시는가는 학생들의 학습으로 이어지고 결국 학생들의 세계관 형성과 삶에 영향력을 미친다. 그러므로 기독교대학의 교수들이 믿음의 토대 위에서 삶의 전 영역을 세우고 있는지, 연구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적 관점에서 규명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교육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지향하며 강의실에서 그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있는지, 신앙적 가치관과 교육의 목표에 대한 합의된 헌신이 있는지를 개인적으로, 또한 공동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적인 가르침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 3. 기독교적 가르침의 목적

모든 기독교대학들의 교육의 목적은 그 대학이 내세우는 사명선언문이나 인재상 등의 문구에서 명시화되어 있다. 그러나 그 교육의 목적이 개설된 강의들을 통해서 구현되도록 하려면 교수의 가르침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갖추어야 한다. 벤자민 블룸(Bloom, 1956)의 교육의 목적 분류를 토대로 여러 기독교 학자들이 제안한 기독교적 가르침의 목적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헨리 베브스루이스(Henry Beversluis), 도날드 오프왈(Donald Oppewal)	지적, 판단적, 창의적 범주에 걸친 통합적 목적
북미 기독교 학교 연합회(CSI)	지적, 판단적, 창의적 범주의 목적 + 정서적 목적 영역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Nicholas Wolterstorff)	지식, 능력, 경향성(제자도)
해로 반 브루멜른 (Harro Van Brummelen)	헌신으로 인도하는 올바른 성향(경향성) 위에 책임 있는 (반응하는) 제자도를 위한 명제적 지식, 방법적 지식, 창의적이며 문제해결적 지식

〈표1〉 기독교적 가르침의 목적

위의 기독교적 가르침의 목적들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학생들을 지적 범주, 분별력의 범주, 실천적 범주에서 통합적으로 가르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책임 있고 섬기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구비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적 가르침의 목적을 제자도라 정의한다면, 실제로 강의실 안에서 책임 있는 제자도를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르침, 즉 교수·학습의 내용을 더욱 명료하게 정리해야 한다.

반 브루멜른은 교육의 목적을 기독교적 가르침과 연관시키며 가르침의 구성 요소로 다음 네 가지를 들었다(Van Brummelen, 1988: 30).

- 지도하기 (guiding): 인격적인 권위에서 나오는 직관과 능력으로 지도하는 것
- 구조화하기 (structuring): 존경과 사랑, 용서와 화해, 진실함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의 구조를 만드는 것
- 펼쳐 보이기 (unfolding): 하나님의 창조의 통일성과 다양성, 삶의 의미와 가능성, 죄의 권세와 구속
- 능력 부여하기 (enabling): 헌신의 이행, 책임 완수, 제자도 실행

위의 네 가지 가르침의 요소들은 따로 따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구조화와 펼쳐 보이기 에 달려 있고, 구조화를 위해서는 교수의 지도하기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대학의 교수들은 각자의 강의를 구성할 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총망라한 기독교적 가르침의 요소들을 중심으로 정교하게 강의를 설계해야 한다. 이에 대한 사례로서 기독교대학의 영어전공에서의 영어강독 과목의 기독교적 가르침의 사례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 III. 기독교적 가르침을 위한 영어강독 교과목 설계

#### 1. 기독교대학에서의 영어 전공과정

국내 대학의 영어영문학과에서 영어강독 수업은 대개 기초필수 영역에 해당이 된다. 교수자의 선택에 의해 영어로 원서강독을 할 교재 선정부터 수업활동이 구성이 되는데 대학에 상관없이 대동소이하게 원서강독에 이은 해석 및 내용 관련 퀴즈나 기말 페이퍼로 구성이 된다. 주로 선정하는 원서강독용 교재로는 영미단편소설 모음집부터 시사성을 지닌 기사나 논설에세이 모음집이 일반적이다. 영어 전공과정에서 영어강독 교과목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학생들의 영어독해능력(reading comprehension)의

함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영어강독 과목을 통해서 영어독해능력 향상뿐만이 아니라 종합적 사고 훈련 및 기독교적 가르침의 통합까지 포괄할 수 있는 교과목의 설계와 다양한 교수·학습활동들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가 소속한 기독교대학의 영어전공에서는 교육과정을 새롭게 개편하면서 학교의 전공교육 체계 상 인문학인 영어전공의 학점 이수 기준이 낮다는 한계 하에서도 전공과목에서의 기독교적 가르침을 통합하겠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개편작업을 진행하였다. 국내의 기독교대학들의 영어전공의 교육과정편성을 검토한 결과, 국내 일반대학의 영어전공의 교육과정과 크게 차별성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교의 영어전공의 기독교적 가르침의 통합을 위해서 국내외 기독교대학들의 외국어 교육과정들을 검토하였고, 특히 북미의 대표적인 기독교대학인 켈빈대학교(Calvin College)의 스미스(David Smith)교수의 기독교적 가르침의 통합에 기반하고 있는 외국어교육 교과과정 구성 및 교과목의 목표와 내용들을 참고하였다(Smith and Carvill, 2000; Smith, 2009; Smith and Smith, 2011).

국내 대부분의 대학에서 어문전공의 최소학점이 45학점 이상인 것에 반해, 본교에서는 모든 전공의 학점은 최소 33학점으로 하고 다양한 전공 상의 융합역량을 고취하기 위해 학생들이 복수 전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 개편 시에 타 대학의 어문전공에 비해 적은 최소이수학점으로 최대한의 전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영어 교과목 개설 대신에 영어역량과 비판적 사고 및 종합분석역량 등의 상위의 역량을 통합하는 교과목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모든 교과목을 기독교적 가르침의 토대 위에서 조명하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적인 교과목으로 개발하기로 원칙을 정하였다.

이러한 교과목 개발 원칙에 의거하여, 영어강독 교과목을 “Reading and Reflecting through Great Minds(RRMD)”라는 과목으로 개발하였고, 영어 기초역량 영역이 아닌 세계관 통합영역으로 분류하면서 기독교적 가르침의 통합을 명확히 하였다 <부록1 참조>.

## 2. 기독교적 가르침을 위한 영어강독 수업 설계

앞서 기술한 기독교적 교육의 목적과 반 브루멜른의 기독교적 가르침의 네 가지 구성 요소에 기초하여 기독교적 가르침을 통합한 영어강독수업을 설계하였는데, 본 논문



에 제시된 교수·학습활동 사례들은 본 과목을 처음 개설한 2013년도 1학기 이후로 7학기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온 활동들이다. 기독교적 가르침의 구성요소에 입각하여 설계한 영어강독 수업의 목표와 교수·학습 활동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면 다음의 <표2>와 같다.

기독교적 가르침의 목적			
학생들을 지적 범주, 분별력의 범주, 실천적 범주에서 통합적으로 가르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책임 있고 섬기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구비하는 것			
기독교적 가르침의 구성요소	기독교적 가르침의 내용	영어강독 수업의 목표	영어강독 교수·학습 활동
지도하기 (Guiding)	인격적인 권위에서 나오는 직관과 능력으로 지도하기	신앙과 배움과 삶을 통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장형 강의계획서</li> <li>• 교재 선정</li> <li>• 스터디 가이드 제시</li> <li>• 교수 면담</li> </ul>
구조화하기 (structuring)	진실함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의 구조 만들기	자신의 관점을 구두 발표와 에세이작성을 통해서 표현하기  신앙과 배움과 삶을 통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참여 토론식 수업</li> <li>• 그룹 스터디와 보고서</li> <li>• 주별 에세이와 에세이 루브릭</li> <li>• 콜라보레이션 에세이를 통한 협동학습</li> <li>• 강독을 위한 튜터링 세션</li> <li>• 강의실 환경</li> <li>• 영상물 활용</li> <li>• 강의실 파티</li> <li>• SNS를 통한 소통의 공동체</li> </ul>
펼쳐 보이기 (unfolding)	하나님의 창조의 통일성과 다양성, 삶의 의미와 가능성, 죄의 권세와 구속	영어원서를 강독하고 원저자들의 사상과 생각을 이해하기  자신의 생각을 분석종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별 에세이와 에세이 루브릭</li> <li>• 강독을 위한 질문 리스트</li> <li>• 강독을 위한 Self-Check</li> <li>• 자서전 에세이</li> <li>• 협동학습으로서의 시험</li> <li>• 교수의 강의</li> </ul>
능력 부여하기 (enabling)	헌신의 이행, 책임 완수, 제자도 실행	신앙과 배움과 삶을 통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사회의 이슈에 대한 그룹 발표</li> <li>• 비전 에세이</li> </ul>

<표2> 기독교적 가르침의 구성요소에 의한 교과목 설계

**(1) 확장형 강의계획서**

영어강독 수업에서 교재 강독을 통해서 기독교적 가르침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앞서 기술한 기독교 교육의 목적과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는 수업 설계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자는 확장형 강의계획서(extended syllabus)를 개발하여 한 학기 강의를 주별로 정교하게 설계하였다. 본 연구자가 개발한 확장형 강의계획서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기본 강의 정보	강의명, 강의코드, 학점, 강의실 및 시간, 강의조교
강의 개요	강의에 대한 간략한 소개
강의 목표	강의 목표, 교수·학습 활동, 목표한 성취 역량
강의 운영	교재소개, 출결운영원칙, 평가방식, 표절, 사용장비, 수업활동 시간 안배 계획
과제 및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규칙 설명	주별 에세이, 자서전 에세이, 통합비전에세이, 그룹 토론, 그룹 발표, 퀴즈
주별 과제 일정표	16주의 수업 내용과 과제의 일정 요약표
부록(사용하는 모든 양식들)	그룹 토론 보고서, 발표 평가양식, 발표 피드백 양식, 에세이 평가기준,
상세한 주별 차시 계획	학습목표, 주요학습내용, 교수방법, 학생준비사항, 참고자료, 과제

〈표3〉 확장형 강의계획서 구성요소

각 차시 별로 학습목표, 주요학습내용, 교수방법, 영상자료, 학생준비사항, 참고자료, 과제에 걸쳐서 한 학기 전체의 강의의 내용을 아래의 도표와 같이 설계하였고, 수강 신청 기간 중에 학생들에게 공지함으로써 강의의 목적과 과제의 강도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수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첫 수업 시간 전체를 할애하여 본 강의의 모든 요소에 대해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교수가 이 과목을 어떻게 설계하였고 얼마나 엄중한 사명감으로 본 수업에 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3 주 차	1	학습목표	Refer to Course Objectives and Related Learning Outcomes
		주요학습내용	1. Knowing is Loving: p.1~p.16
		교수방법	Flipped-Lecture-Discussion
		영상자료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40rgKgtXv7o">https://www.youtube.com/watch?v=40rgKgtXv7o</a> 14'55"~19'40" (최인철 교수 강의: 프레임) - "Our seeing shapes our being." / 그룹스터디 질문들과 연결하기
		학생준비사항	Textbook, Study Guide for Chapter 1
		참고자료	Chapter Questions List for Chapter 1
		과제	Team work 2 Autobiography Essay 설명 - "배효영의 편지"
	2	학습목표	Refer to Course Objectives and Related Learning Outcomes
		주요학습내용	2. Education as Spiritual Formation: p.17~p.32
		교수방법	Flipped-Lecture-Discussion
		영상자료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wWPOG_hxkTE">https://www.youtube.com/watch?v=wWPOG_hxkTE</a> Love & Connection: Erin Solari shares her grandparents with the world
		학생준비사항	Textbook, Study Guide for Chapter 2
		참고자료	Chapter Questions List for Chapter 2
		과제	Essay 2 Team work 2 Report Read Chapter 2 of 『To know as we are known』

〈표4〉 확장형 강의계획서의 차시 계획 사례

영어강독을 통한 기독교적 가르침의 통합을 위해서 강의의 목표로 1) 영어원서를 강독하고 원저자들의 사상과 생각을 이해하기 2) 자신의 생각을 분석종합하기 3) 자신의 관점을 구두 발표와 에세이작성을 통해서 표현하기 4) 신앙과 배움과 삶을 통합하기, 이상의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각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학생들이 성취할 것으로 기대되는 역량을 함께 정리하면 아래의 도표와 같다.

No	강의 목표	성취 역량
1	영어원서를 강독하고 원저자들의 사상과 생각을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어와 한국어 전반적 능력</li> <li>• 분석적 비판적 사고</li> <li>• 현 세상과 문화의 이해</li> </ul>
2	자신의 생각을 분석종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석적 비판적 사고</li> <li>• 현 세상과 문화의 이해</li> </ul>
3	자신의 관점을 구두 발표와 에세이를 통해서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어와 한국어 전반적 능력</li> <li>• 분석적 비판적 사고</li> <li>• 현 세상과 문화의 이해</li> </ul>
4	신앙과 배움과 삶을 통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석적 비판적 사고</li> <li>• 현 세상과 문화의 이해</li> <li>• 하나님의 나라와 직업의 소명의 이해</li> </ul>

〈표5〉 영어강독 강의의 목표와 학생 성취 역량

## (2) 교재 선정

앞서 기술하였듯이 국내 대학의 영어강독 과목의 최우선 목적은 학생들의 영어독해 능력 향상에 있고, 따라서 원서강독용 교재로는 단편소설 모음부터 시사성을 지닌 기사나 논설에세이 편집서가 선택이 된다. 삶에 있어서 성경적 세계관의 통합적 관점을 위해서 교수에 이어서 영어교재가 매우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김종국, 2012: 121) 그러나 강의의 목적 및 학습 상황을 평가하면서 수정과 보완을 함으로써 교재와 강의의 목적과의 부합도에서 교수의 지혜가 요구된다(이성희, 2006: 171). 반 브루멜렌(1988: 127)은 교재선택과 관련하여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교재들과 다른 자원들이 교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자료는 수단이지 사용 주체가 아니다... 교사인 당신이 단원의 목적에 기여하는 교육 자료들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강독을 위한 교재 선정과 관련하여 제시된 많은 질문 리스트 중에서 본 영어강독 수업교재에 해당되는 질문들을 아래와 같이 선정했다(Van Brummelen, 1988: 129-130).

- ① 저자의 가치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 ② 저자의 세계관과 교수자의 세계관과 양립할 수 있는가?

- ③ 기독교적 세계관이 가르칠 주제에 통합적인 부분인가 혹은 ‘덧씌워진 것’인가?
- ④ 의미 있는 맥락에서 언어 기능을 발달시켜 주는가?
- ⑤ 개인적 반응을 요구하면서 다양한 추후 활동들을 제공하고 있는가?
- ⑥ 책임 있는 제자도를 기르게 하는가?

위의 질문들에 따라서 고찰하면서, 동시에 학부생들에게 언어적으로 적합한 수준의 영어원서들 중에서 본 연구자는 강의의 목표에 부합한 강독교재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강의 목표 <sup>4)</sup>	다루고자 하는 주제	교재에서 필요한 핵심 개념 분석	선정한 강독 교재	저자
1, 2, 3	나 자신의 내면과 공동체의 중요성에 관하여	- 기독교적 인식론 - 객관주의의 폐해 - 진리의 공동체	To know As We Are Known: Education as a spiritual journey, 1993. HarperSanFrancisco	Parker J. Palmer
1, 2, 3	나의 세계관과 소명에 관하여	-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기독교 세계관의 틀 - 하나님의 나라와 직업의 소명	Engaging God's World: A Christian vision of faith, learning, and living, 2002. Eerdmans Publishing	Cornelius Plantinga Jr.
3, 4	이 세상과 이 시대의 변혁에 관하여	- 동성애, 가난, 인권 등 현대사회의 문제 중심으로 기독교적 해법 모색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2006. Zondervan	John Stott

〈표6〉 강의목표에 부합한 교재

### (3) 강독과 학습을 도와주는 다양한 활동들

#### ① 강독을 위한 질문 리스트

기독교적 가르침의 통합을 위한 영어강독 수업을 위해서는 수업시간에 주로 강독하고 해석하고 설명하는 전통적인 교수법이 아니라, 미리 주어진 교재 범위를 읽고 수업

4) 1. 영어원서를 강독하고 원저자들의 사상과 생각을 이해하기, 2. 자신의 생각을 분석종합하기, 3. 자신의 관점을 구두 발표와 에세이를 통해서 표현하기, 4. 신앙과 배움과 삶을 통합하기

에서는 교수가 중요한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그룹별로 토론하는 토론식 교수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충실한 사전 강독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강독을 돕기 위한 상세한 질문 리스트를 교재의 내용을 따라가며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교수가 개발한 질문리스트를 따라서 읽도록 지도하였다.

교재/장	강독을 위한 질문	페이지
To know as we are known	1. What was the film documentary “The Day after Trinity” about?	p.1
	2. What is the opposite of “knowledge of sin”?	p.2
	3. What are the three things hope and grace require?	p.2
2장 Knowing is loving.	4. How does the author compare those nuclear physicists and himself?	p.2~4
	5. Why were American undergraduates optimistic about their own lives, but pessimistic about the future of the world?	p.4

〈표7〉 강독을 위한 질문 예시

### ② 강독을 위한 Self-Check 양식 활용

수업 전 강독을 독려하기 위한 장치 중 하나로 스스로 강독을 하면서 소단원별로 체크를 하고 주요 개념이나 요약, 혹은 자신의 생각을 기록할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하였다. 이 양식은 강독 시에 완성을 한 후에 주별 에세이를 제출할 때 에세이 앞에 부착해서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수업 전 강독의 동기부여를 제고하였다.

### ③ 강독을 위한 튜터링 세션

본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 중에는 영어권 국가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 혹은 일부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영어원서강독에 능숙한 학생들도 일부 있었지만, 교재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영어 외에도 개념적 이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따라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별도로 강독을 위한 튜터링 세션을 제공하였다. 튜터들은 이전 학기에 본 강의를 성실하게 수강한 학생들 중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학생들 위주로 모집을 하여서 봉사과 점감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서너 명의 튜터들이 시간별로 각 세션을 맡고 학생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지원을 하되 세션별로 숫자가 너무 많지 않도록 조절을 하였다. 또한, 튜터들을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고 강의의 진도에 맞추어서 강독을 도와주는 튜터링 세션을 제공하며 격주로 튜터들과의 피드백을 위한 회의를 가짐으로 학생들의 강독의 수준과 이해도 등의 피드백이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었다.

#### (4) 학생 참여 토론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

##### ① 기독교적 가르침의 통합을 위한 스터디 가이드 개발

본 영어강독 수업에서는 교재의 내용에서 기독교적 세계관과 통합적으로 토론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기 위하여 교수자가 직접 스터디 가이드를 각 장별로 아래와 같이 개발하여서 수업 시간 중의 토론과 학생들의 그룹 스터디 시의 토론 가이드로 사용하였다.

1	Define “knowledge of grace” vs. “knowledge of sin.”
2	Share “your story” when you were tempted to sin.
3	When did you first learn that the world is an object to be manipulated
4	Do you think that knowledge is neutral? Yes or No. Please elaborate.
5	Define “the act of knowing” in your own words.
6	Why can’t the author support vocal prayer in class? Do you agree with him or not? Please elaborate.
7	Identify those words that mean Godly traits.
8	Contemplate on Thomas Merton’s thought on “purpose of education”.
9	If you are asked to choose only one statement from this chapter which impacts you the most, what would that statement be?
10	Share your epiphany moment with your peers.

〈표8〉 스터디 가이드의 질문 예시

##### ② 그룹 스터디와 보고서

매주 수업 이외에 학생들이 그룹으로 90분의 그룹 스터디를 통해서 상기의 토론 가이드를 중심으로 수업 시간에 이어서 토론과 나눔을 이어가도록 하였다. 그 이후에 그룹별로 한 명이 대표자가 되어서 제공된 보고서 양식에 의거해서 매주 자신들이 토론

한 내용들을 간략히 기록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보고서는 토론의 주제 및 간략한 내용, 목상나눔, 그리고 토론 중에 나온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룹 스터디의 마지막 부분에는 토론을 하면서 그룹원들이 추가 질문을 적게 되어 있는데 각 그룹들의 질문들을 모두 모아서 비슷한 질문들을 분류하고 교수는 다시 수업에서 그 질문들에 대한 답과 피드백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5) 다양한 에세이 과제

에세이 과제는 영어강독 수업의 내용에 대한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생각의 틀과 삶에의 적용으로 이어주는 데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학습과제가 된다. 읽고, 생각하고, 수업과 그룹 스터디를 통해서 토론을 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한편의 글을 씀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의 세계관을 점검하고 기독교적 가르침과 삶의 통합을 훈련하게 되는 것이다. 본 강의에서는 주별 에세이, 콜라보레이션 에세이, 자서전 에세이, 비전 에세이 등의 다양한 에세이 과제들을 16주에 걸쳐서 제시하고 있다.

#### ① 주별 에세이와 에세이 루브릭

학생들이 매주 제출하는 에세이는 정확하게 그 주에 강독한 내용과 수업과 그룹 스터디에서 토론한 주제들에 맞춰서 작성함으로써 학생들이 교재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자신들의 생각을 주제에 맞춰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이 에세이에 대한 평가 루브릭은 미국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NCTE)에서 개발한 “Read, Think, Write Essay Rubric”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1) 핵심주제와 부차 논증(Focus & Details) 2) 글의 조직(Organization) 3) 문체 스타일(Voice) 4) 단어선택과 표현력(Word Choice) 5) 문법과 구두점(Sentence Structure, Grammar, Mechanics, & Spelling), 이렇게 다섯 영역으로 나누어서 평가하였다. 에세이 평가결과는 매주별로 상,중,하의 세 그룹으로만 나누어서 점수화함으로써 학생들이 점수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않도록 하였다. 매주 제출한 에세이는 그 다음 주에 교수의 피드백과 함께 돌려주었고, 그 중에서 “최고 에세이”가 아닌 자신의 세계관적 변화와 고민의 과정을 가장 잘 기술한 에세이를 “이번 주의 모델 에세이”로 선정하여 교수가 수업의 시작점에서 낭독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에세이 작성의 동기부여가 학기 내내 지속될 수 있도록 하였다.



## ② 콜라보레이션 에세이를 통한 협동학습

주별 에세이에 어느 정도 익숙해질 5주차 혹은 6주차에 강독교재의 내용은 “진리의 공동체”가 핵심 주제가 됨으로, 자연스럽게 스터디 가이드의 토론을 위한 질문들도 이에 맞추어진다. 이 주차에 실제로 “진리의 공동체”를 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콜라보레이션 에세이” 과제를 줌으로써 혼자만의 글쓰기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의 에세이로 녹여내는 협동학습을 통해서 책에서 기술된 “진리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콜라보레이션 에세이는 1) 우선 각자 에세이를 작성한 후, 2) 서로 돌려가며 피드백을 기록하고 나눈 후에 3) 하나의 에세이로 모아가는 과정을 기록하며 4) 하나의 콜라보레이션 에세이를 완성한 후에 5) 그 과정에 대한 소감문을 포함한 포트폴리오를 제출한다는,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따라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한다.

이 주차에 들어가면 그룹원들은 서로에게 어느 정도의 신뢰감이 형성되며, 그 기반 위에서 진행된 이 콜라보레이션 에세이 과제는 강독의 주제와 아울러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었다. 그 하나의 사례로, 2015년 2학기에는 9개 그룹이 “진리의 공동체”를 주제로 콜라보레이션 에세이를 작성한 후에, 다시 교수까지 참여하여 “미션 파서블-진리의 공동체 체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에세이로 만들어서 학보사에 기고하였다. 이러한 콜라보레이션 에세이 체험에 대한 학생들의 아래와 같은 피드백은, 본 활동을 통해서 기독교적 관점을 경험하고 자신들의 기존의 관점들을 조금씩이나마 확장, 수정해나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다(1). 여러 명이 하나의 에세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2). 각자의 생각들을 어떻게 합쳐야 할지 너무 막막했고 쉬운 과정은 아니었지만 혼자서는 더 좁게 보았을 문제를 넓고 깊게 고민할 수 있어서 좋았다(3). 방법은 대화였다(4). 우리는 서로 진리에 대해 다르면서도 공통된 생각을 갖고 있음과 한 가지 주제를 두고 여러 접근법을 통해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음에 놀랐다(5).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만 같다면 서로 다른 의견들일지라도 결국 조금씩 더 진리에 가까워질 수 있음을 경험했다(6). 단순히 하나의 에세이를 완성시키는 과정보다는 서로의 깊은 생각과 삶의 배경들을 나누는 시간이 더욱 의미 있었다(7). 이 사람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점점 좋아졌고, 인생의 내면을 정직하게 대면한 용기가 대단하고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느꼈다(8). 우리 모두 진리에 관해 더욱 더 알아가길 원했고, 진리 안에 거하며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되었다(9).”

### ③ 자서전 에세이

학기의 6, 7주차가 되어 수업이 안정이 되고 교수와의 신뢰의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 시점에 주별 에세이 외에 특별하게 “하나님 안에서 나의 어제(My yesterday in God's story)”라는 별칭으로 자서전적 에세이를 쓰게 하였다. 이 에세이의 목적은 현재까지의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의 세계관 형성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 사건들, 신념들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데에 있다. 자서전 기술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주제방식을 제시하였다. 1) 과거의 한두 개의 사건, 혹은 한두 명의 사람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기술하는 방식(예: 부모님의 이혼, 친구의 죽음 등), 2)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중요하거나 영향을 미친 주제를 중심으로 기술하는 방식(예: 인내, 사랑, 고통, 용서, 갈등), 3) 최근 가졌던 깨달음의 사례를 통해서 자신에 대해 관찰자의 시점으로 기술하는 방식(예: 대학교 기숙사의 생활, 아르바이트의 경험) 등이다.

이 자서전 에세이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유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은 놀랄 만큼 정직하게 자신들의 삶을 직시하고 자신들의 삶에 있었던 단절의 아픔, 상처받기 쉬움, 이성이라는 한 눈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 진리의 기독교적인 조명에 의한 세계관의 확장 등에 관해 성찰적인 회고를 적고 있다. 이는 강독한 교재와 토론 및 에세이 과제 등을 통해 자신들의 관점을 재조정하고, 보다 깊은 삶의 성찰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된다.

### ④ 통합적 비전 에세이

통합적 비전 에세이는 한 학기 전반에 걸친 학습활동에 대한 학생의 총 결산을 담은 에세이로 맨 마지막 주에 제출하게 된다. 이 에세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주제를 놓고, 왜 그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 주제에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기독교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의 소명은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기술하도록 한다. 이 에세이는 세 권의 교재 강독과 토론, 에세이, 조별 발표 등의 학습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형성한 세계관적 접근의 총체적 결산물임과 동시에, 자신의 부르심을 향한 순종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6) 현대사회의 이슈에 대한 그룹 발표**

한 학기 동안 한 조가 되어서 매주 모임을 가진 학생들은 학기 종반에 현대 사회의 이슈를 하나 선정해서 15분의 발표를 하도록 하였다. 발표의 주제는 교재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에서 다루는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이슈들, 혹은 그 이슈들에서 파생된 주제에 한정하였다. 그 이슈들은 크게 아래의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다.

글로벌 이슈	전쟁과 평화, 창조세계를 돌보기, 글로벌 가난의 문제, 인권
사회적 이슈	일과 세상, 비즈니스 관계들, 인종의 다양성, 자족하는 삶
개인적 이슈	여성과 남성, 결혼과 이혼, 유산과 안락사, 생명공학, 동성애

〈표9〉 그룹별 발표의 주제들

발표 자료의 마지막에는 전체 학생들과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질문들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각 조별로 발표를 마친 후에는 청중이 되는 학생들은 발표조가 선정한 주제와 연관성이 있는 음악을 들으면서 제공된 피드백 양식에 발표에 대한 피드백과 추가 질문들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학생 피드백과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교수의 평가를 종합하여서 다음 시간에 이전 발표조에 대한 총평과 아울러 추가 질문들에 대해 전체 학생들과 다시 나누는 것으로 한 주제에 대한 발표를 마무리하였다.

**(7) 협동학습으로서의 퀴즈**

퀴즈는 논술식 시험이 아니라 교재 강독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위한 용도의 단답형 시험으로 핵심 개념, 주요 용어 및 인명 등에 관한 문제를 제출하였다. 또한, 상대평가 제도에 익숙한 학생들은 시험이라는 평가도구 앞에 서게 되는 즉시에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조원들을 경쟁자로 인식하게 될 수 있음을 감안하는 “숨은 교육과정(Hidden Curriculum)”의 관점에서 퀴즈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여서 협동학습의 차원으로 가져갔다. 인쇄된 시험지를 지양하고 구두로 문제를 낭독함으로 영어로 듣고 답하는 방식을 주로 택하였다. 먼저 개인적으로 답을 적도록 한 후에, 오픈 북이나 조원들과의 상호 질문 등의 매번 다양한 방식을 통한 보너스 점수를 일정 정도 허용함으로써 시험이 곧 협동학습으로 될 수 있음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기독교적 통합 수

업에서의 시험이나 평가에 있어서 성실하게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이 허탈감을 느끼지 않음과 동시에, 강독을 성실하게 하지 않은 학생들 또한 지속적인 좌절감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균형을 이룸으로써 수업의 공동체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배려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숨은 교육과정”의 하나가 될 것이다.

### (8) 공동체 형성을 위한 숨은 교육과정(Hidden Curriculum)

상기에서 기술하였듯이, 기독교적 가르침의 통합 수업에 있어서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공동체 형성 여부는 가시적 교육과정(Visible Curriculum)보다 숨은 교육과정(Hidden Curriculum)을 통해서 그 진면목이 판가름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숨은 교육과정은 주로 학생들의 태도, 가치관 및 신념과 관련되는 정의적 측면에 영향을 주며, 학교의 문화풍토, 교사의 인격적 감화를 중시하고 있기에 기독교적 가르침의 통합 수업을 설계할 때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된다(김영숙·이지연, 2015: 65). 본 수업 설계에서는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숨은 교육과정의 요소로 포함하였다.

#### ① 강의실 환경

본 교과목을 위해서 이동이 가능한 모듈식 책상과 의자가 있는 강의실을 요청하여 배정받았고 매 수업 시작 전에 학생들은 조별 활동이 가능하도록 책상을 이동하도록 하였다. 다양한 연계전공과 학년들로 인해 본 수업에서 처음 만나는 학생들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학생들의 이름을 회의용 아크릴명패에 큰 활자로 인쇄하여 매 수업마다 자신들의 책상 위에 올려놓음으로 교수와 학생들이 학기 초부터 서로의 이름을 용이하게 부를 수 있도록 하였다.

#### ② 영상자료 활용

매 수업을 시작하면서 그 날의 주제에 부합하는 국내외의 다양한 영상물들을 3분 내외로 시청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들이 주제에 보다 쉽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심리적인 방어벽을 낮춤으로써 토론과 나눔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효과를 제고하였다. 영상물들의 종류로는 음악과 예술작품, 영화의 한 장면까지 다양한 장르

에 걸쳐있고, 영상물의 출처로는 페이스북에 올린 자료나 유튜브의 동영상 자료 등을 수업의 내용과 주제에 부합하도록 수업 전에 미리 검토하여 선정하였다. 영상자료는 매 학기 새롭게 업데이트함으로 시의적절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③ 수업 파티

다양한 방식으로 공동체성이 함양이 되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한 학기의 중간 시점과 기말시점에 샌드위치, 과일, 케이크 등을 함께 나누는 “브런치 파티” 혹은 “티 파티” 등을 배설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도 학생들 안에서 파티준비위원회에 자원하고 서빙이나 사회 등의 역할을 맡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서로를 섬기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제공하도록 한다. 이처럼 수업에서 파티를 한다고 해서 교수의 강의나 학생들의 토론이 방해될 받기보다는 오히려 수업에 신선한 활력을 주며 학생들은 떡을 떼는 교제와 색다른 수업 진행을 통해서 행복하고 즐거운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다.

### ④ 공동체의 지속성

이전 학기에 본 과목을 수강했던 선배들을 정기적으로 초청하여 자신들이 이전에 썼던 에세이를 들려주거나, 졸업한 선배로부터 편지를 받아서 낭독해주는 것은 수강 중인 학생들에게 보다 넓은 공동체적 경험을 제공해준다. 이 수업이 끝난 뒤에도 수업을 통해서 형성된 기독교적 가치관이 선배들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학생들은 동기부여를 받고, 용기와 자신감을 얻게 된다. 실제로, 수업에서 만난 학생들이 종종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짐으로 공동체가 지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카카오톡과 같은 SNS 상으로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여 수시로 공지 및 정보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함으로써 수업에서만 아니라 수시로 삶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강의실에서의 공동체를 더욱 강화시키는 효과가 크다. 학기를 마친 후에도 단체 카톡방에서는 지속적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는 따뜻한 대화들과 일자리 정보에 대한 정보 교환들이 이어지며, 교수가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좋은 소통의 장을 제공해준다.

### (9) 교수 면담

마지막으로, 본 수업을 통해서 강의실에서 시작된 만남은 강의나 그룹에서 나누지 못한 개인적인 고민이나 진로에의 갈등, 신앙적인 질문 등을 교수와의 개별 면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교수는 개인 면담을 주기적으로 독려하고 자신의 간증이나 삶을 나눔으로써 학생들의 기독교적 관점과 삶에의 통합에 있어서 실제적인 본을 보일 수 있다. 교수가 인생의 선배이자 롤모델로서 자신의 삶에서 신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나눔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 된다.

## IV. 기독교적 가르침의 통합 시도에 대한 학생들의 피드백

본 수업의 기독교적 가르침의 통합시도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는 1) 교수학습센터의 <좋은 수업 소개시켜줘> 공모전에 자발적으로 응모하여 수상을 한 수강생들의 수기, 2) 매 학기 강의만족도 평가에 기술된 학생들의 주관식 피드백, 3) 본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한 줄 평, 이렇게 세 종류의 통로를 통해서 볼 수 있었다. 본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피드백을 살펴보면, 학생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학습활동들마다 자신들의 정체성과 소명을 경험하고 발견하였으며, 함께 한 교수와 학생들 사이에서 진리를 찾아가는 공동체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했다. 강독한 교재와 토론, 에세이 과제, 그룹 활동, 프레젠테이션 준비와 발표, 수업운영, 성적평가방식 등에 대한 학생들의 상세한 피드백은 부록 2에 포함하였다. 공모전 수기에서 나타난 결론적 피드백은 다음과 같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에서 보면 그 짧은 시간 동안 제자와 스승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 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대화를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하였다. 서로를 통해 진리를 발견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평생 잊지 못할 시간을 가졌다. 나에게서는 RRM수업이 그러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교수님과 성적을 놓고 다투는 경쟁자가 아닌 친구들, 우리와 같은 고민을 안고 사는 복음주의 지지들과 함께한 풍성한 한 학기였다. 모두 강의실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창조를 찾아보던 그 날의 햇살처럼 RRM 수업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의 삶 속에서 때로는 꽃향기로 때로는 푸르름으로 그리고 이 가을날에는 곱디고운 단풍으로 우리들의 삶을 엮어가고 있다(<좋은 수업 소개시켜줘> 공모전 김000학생 수기 중에서).

RRM수업이 추구했던 가치, 그리고 이를 전달했던 책의 내용은 나의 삶을 바꾸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난 이 RRM 수업이 나의 삶뿐만 아니라 함께 수업을 들었던 학우들의 삶, 그리고 이를 이끌었던 교수님의 삶 또한 바꿨을 것이라 확신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의 공동체(the community of truth)로 한 학기를 보냈기 때문이다(<좋은 수업 소개시켜줘> 공모전 손00학생 수기 중에서).

또한, 강의평가의 주관식 의견들과 본 수업에 대한 피드백들을 1)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하여, 2) 영어강독에 대하여, 3) 수업방식과 과제에 대하여, 4) 교수에 대하여, 이렇게 네 영역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p>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많은 생각과 고민을 통해 우리의 세계관이나 가치관 형성에 크게 도움이 됨”</li> <li>“사고의 확장을 통해 기존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사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수업”</li> <li>“세상의 모든 부분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수업”</li> <li>“제대로 된 생각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수업”</li> <li>“기독교적인 것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 정리하는 수업”</li> <li>“분별하는 눈과 귀를 얻게 한 수업”</li> <li>“세상을 향한 나의 시선을 바로 맞춰가는 시간”</li> <li>“거울. 내 자신 혹은 타인의 내면이 반사되어 보이는 거울”</li> <li>“내 인생관의 초석, 주춧돌(Cornerstone)”</li> <li>“Microscope of my mind. 내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한 수업”</li> </ul> </li> <li>• 신앙과 배움과 삶의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합적 인성교육으로 삶을 다시 많이 돌아보게 하는 수업”</li> <li>“4년간 학교를 다니면서 들어본 강의 중 가장 유익한 과목”</li> <li>“단연코 최고의 과목으로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임”</li> <li>“본래 모두가 꿈꿨던 대학 수업, 모두가 꿈꾸는 대학 수업”</li> <li>“나아갈 길을 비춰준 등대”</li> <li>“나 자신과 타인,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넓혀주는 수업 (단순히 기독교적 관점에만 국한되지 않음)”</li> <li>“Mind를 Regenerate하고 Refine 하게 해주는 통합적 학문의 장”</li> <li>“Why not change myself?”</li> </ul> </li> </ul>
<p>영어 강독에 대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독과 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전과 나의 삶의 맞닿은 손가락”</li> <li>“작가와 소통을 통한 세계와의 소통 및 자아성찰”</li> <li>“탁월한 강독 교재 선택의 덕분으로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으로 많은 것을 느끼는 계기가 됨”</li> </ul> </li> </ul>

<p>영어 강독에 대하여</p>	<p>“많이 읽고 성찰하게 되고 크리스찬으로서 생각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게 됨”          “작품을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깊게 묵상하고, 내 자신을 더욱 성숙하게 자라나게 하는 수업”</p>
<p>수업 방식과 과제에 대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와 토론           <p>“매주 과제를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지만 다 마치고 보니 제게 너무 큰 경험이며 성실함을 기를 수 있었음”            “매주 제출해야 하는 페이퍼, 팀과제, 발표과제, 글쓰기 과제 등 해야 할 것은 많았지만, 다 저희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음”            “단순히 강의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 팀으로 2-3명씩 나뉘어서 서로의 의견과 생각을 나누고 글쓰기 훈련을 할 수 있었음”            “기독교적 사고를 바탕으로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어 좋았고 토론하는 시간이 많아 유익함”</p> </li> <li>• 조별 활동과 공동체성           <p>“함께 배우며, 깨지며, 성장하는 시간”            “나를 돌아보고 나와 함께하는 지체를 돌아보고 세계를 이해하는 시간”            “한 곳에 제한되어 있지만, 정신과 마음은 시공을 초월하여 제한되지 않음”            “유토피아에서의 휴식과 같이 지친 일상 가운데 새 힘을 주고, 깨달음과 감동을 주는 수업”            “이 강의가 저에게는 이번 학기의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            “참 힐링이 많이 되는 수업”            “대학에 와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수업 처음이에요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요~!”            “알(R)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던 그것을, 알(R)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준, 엠(M)에랄드 같은 수업 공동체”</p> </li> <li>• 새로운 수업 방식           <p>“대학에서 제가 처음으로 접한 새로운 형태의 수업”            “이러한 수업을 처음 들어봐서 처음엔 잘 안 맞아서 힘들었으나 참 유익한 수업”            “다양한 이슈들을 가지고 성경적 관점에서 해결책을 만들 수 있는 초석을 쌓았던 귀한 시간들”            “평소에는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수업”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리고 하지 못할 기억에 남는 수업”            “학업 이외에도 얻어가는 것이 참 많은 수업”            “교수님과의 나눔에서 많은 것을 얻는 수업”            “다른 사람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은 수업! 이런 게 많이 생기면 좋겠다.”</p> </li> </ul>



교수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수님, RRM은 사랑입니다:) 정말 한 학기 동안 많은 것을 배웠고, 제 전공 수업들 중 최고라고 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li> <li>“You were such a wonderful and loving professor. Somehow you were a professor but also felt like a trusting upperclassman. It was wonderful!”</li> <li>“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너무나 좋은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li> <li>“교수님! 너무나너무 소중한 강의였어요. 항상 순수한 마음 간직하고 함께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li> <li>“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살아있는 수업이였습니다!”</li> <li>“The best lecture I’ve ever had!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너무나 좋은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li> <li>“늦게 끝나는 시간이 감사할 정도로 좋은 수업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li> </ul> </li> <li>• 도전과 결단의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고!! 정말 많이 배우고 정말 많이 느끼고 정말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에 앞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교수님!”</li> <li>“정말 많이 배웠고, 많이 도전 받았고, 큰 깨달음을 얻어갑니다.”</li> <li>“인생에 있어 귀한 도전과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li> <li>“기존에 영어전공 수업을 들으면 부족한 영어 실력에 의해 소외감도 느끼곤 했는데. RRM 수업을 통해서 많이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li> <li>“교수님! 정말 이번 학기, 아니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수업들 중 가장 탐에 속한 수업이었어요 ^^ RRM 수업 듣기 참 잘한 것 같아요.”</li> </ul> </li> </ul>
------------	---

〈표10〉 강의평가의 주관식 피드백

## V. 결론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강의실에서 실행할 때에 하나의 정해진 공식과 꿈꾸는 이상에 따라 언제나 동질과 동량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일지도 모른다. 학기마다 만나는 학생이 가져오는 역동성은 늘 다르기에 그때마다 교수는 교육의 목표와 교수·학습활동과 강의의 주안점을 늘 새롭게 조정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대학에서의 강의의 목적은 기독교대학의 설립목적과 사명에 부합해야 하며, 기독교대학의 교수는 자신의 강의를 설계함에 있어서 기독교적 가르침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전공영역과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을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양육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 기독교대학의 전공 교과목인 영어강독 수업을 통해서 기독교적 가르침의 통합을 이루어나가는 하나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독교적인 가르침이란 마치 집을 짓는 것과도 같으며, 그리스도인 선생에게 주어진 임무는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으로 가르치는 것에 있다(Van Dyk, 2000: 31-32).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 한 채를 지으려면 설계가 정교해야 하며 기초석이 있어야 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과 다양한 건축 자재가 필요하듯이, 기독교대학에서 행해지는 기독교적인 가르침은 제자도를 몸소 실천하려는 교수의 소명의식이라는 초석 위에 가르치는 강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 교수의 전 인격적인 삶의 투영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기독교대학에서 행해지는 가르침은 소명과 직분의식을 가진 선생들과, 또한 같은 부르심을 받은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까지 기독교대학의 교수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학생들과 함께 보내는 강의실 내에서 함께 제자도를 배우고 훈련하는 것은 가장 당연하면서도 시급한 부르심이다.

본 논문에서는 영어강독 수업에서의 기독교적 가르침의 통합이 학생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장기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단지 한 학기의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기적으로 기독교적 관점으로 분별하고 삶에 적용하게 되리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욕심일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강의실에서 기독교적 가르침의 통합을 경험한 학생들의 손에는 제법 쓸 만한 나침반 하나가 주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독교적 가르침의 통합 사례가 다른 기독교대학들과 기독교학교들에서 기독교적 가르침의 통합의 관점에서 다양한 교수·학습활동으로 시도되고 확장하는데 있어서 한 알의 밀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에 보다 객관적이며 장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와 같은 통합 수업을 통해서 기독교적 가르침을 자신들의 삶 속에 어느 정도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또 그 결과를 기독교적 가르침의 통합수업의 개선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부록

### 1. 한동대학교 영어전공 교육과정

영역 분류	최소이수과목 (학점)	교과목
세계관 통합	1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Reading and Reflecting through Great Minds (RRM)</b></li> <li>• Culture and Literature in the Global Context</li> <li>• Topics in Language and Thought</li> </ul>
기초 영어	1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udies of English Grammar</li> <li>• English Speech</li> <li>• Advanced English Composition</li> </ul>
전공 기초	5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troduction to Linguistics</li> <li>• Understanding Literature: Reading, Reacting, Writing</li> <li>• Syntactic Analysis of Modern English</li> <li>• The Structure of Modern English</li> <li>• The Structure of Modern English</li> <li>• Themes in Fiction</li> <li>• Themes in Poetry</li> <li>• Themes in Drama</li> <li>• The Structure of Modern English: Sound Patterns</li> <li>• Form and Meaning in the English Language</li> <li>• Studies in Literary Thoughts</li> </ul>
전공 심화	4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troduction to TESOL</li> <li>• TESOL Methodology</li> <li>• TESOL Practicum</li> <li>• Translation in the Global Context</li> <li>• Interpretation in the Global Context</li> <li>• Special Topics in TESOL</li> <li>• Literature and Translation</li> <li>• Interpretation and Communication</li> <li>• Comparative Analysis of English and Korean</li> </ul>
프로젝트 (4학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lobal Training Research</li> <li>• Capstone Design</li> <li>• Special Topics in English 1, 2, 3</li> </ul>

## 2. 공모전 에세이를 통한 학생 피드백

### (1) 강독 교재와 토론을 통해 경험한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피드백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책은 파커 팔머(Parker Palmer)의 『배움과 가르침의 영성(To know as we are known)』이었다. 옆에 앉아 있지만 이름도 모르고 어색하기만한 학우, 어떻게 하면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내 모습, 파커 팔머가 말한 단절의 고통이 여전히 우리의 수업 현장에 가득함을 보았다. 그러면서 서로를 향한, 그리고 학문을 향한 우리의 벽을 허물어갔다.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단순한 호기심과 지배욕이 아닌, 사랑으로 다가가려 노력했다. 매주 학우들과의 토론은 더 깊어졌고 수업에 대한 부담감 역시 줄어들었다. 나는 비교하고 경쟁하는 습관들을 없애려 노력했고, 수업시간에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진리의 공동체를 두고 고민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책은 코넬리우스 플랜팅가(Cornelius Plantinga) 교수의 『기독지성의 책임(Engaging God's World)』이었다. 이 책을 통해서 나는 '살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나는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살롬을 이루는 것이 모든 기독지성인의 책임임을 알았다. 이 책은 복음과 소명에 대한 나의 오해와 그로 인한 죄책감을 씻어주었다. 그리고 학우들과 함께 이러한 오해들을 나누며 우리 각자를 수많은 영역으로 부르셨음에 기뻐했다. 우리는 모두 예수그리스도의 제자이지만, 정치, 경제, 예술, 교육, 법 등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제자들인 것이다. 그래서 각자의 부르심을 나누는 것과 그것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은 행복한 일이었다.

세 번째로 읽은 책은 존 스토틀(John Stott) 목사의 『그리스도인의 책임(Issues facing Christian today)』이었다. 안락사, 동성애, 다문화, 빈곤, 정치, 비즈니스 등에 대해 조별로 한 주제를 선정하여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생각해볼 만한 질문들에 대해 토론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기독교 신앙도 현실의 많은 문제들에 대한 관점(또는 지식)을 형성하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통찰력을 줄 수 있다. 안락사에 대해서 세상의 찬반논란을 벗어나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할 지 고민하는 것은 기독교 지성인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 수업을 통해서 논쟁이 되고 있는 세상의 많은 영역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우리의 가치를 세워갔다.

수업이 깊이 있게 진행되면서, 좌절감이 느껴질 때도 있었다. 한 학기 동안 읽어야

하는 책들은 복음주의 저자들이 깊이 있는 신학과 철학을 바탕으로 진리와 교육,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에 대해 논한 내용이었다. 원서로 읽어야 한다는 부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배우는 내용에 정해진 답이 없기 때문에 더욱 많은 생각을 요구한다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사실 수업에 비기독교인 학우들도 있었다. 처음에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나누고 함께 토론하는 것을 어려워하기도 했었다. 때론, 진리의 공동체를 형성한다든가, 세상의 모든 영역을 회복해야 한다든가 하는 일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 또한 우리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거부하지 않았다. 그리고 함께 씨름하며 서로의 손을 붙잡고 16주를 보냈다 (<좋은 수업 소개시켜줘> 공모전 손00학생 수기 중에서).

### (2) 에세이 과제를 통해 경험한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피드백

‘교육이 전달해야 하는 메시지는 사실, 이론, 실재,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 즉 어원적 의미로 언약을 지키겠다는 서로에 대한 책임성과 관계된 것이다. 객관성으로부터 진리로 시선을 돌려야 하며 이 진리로의 부르심은 곧 공동체로의 부르심이다’라고 파커 팔머는 말한다. 끊임 없이 분리되는 이 시대에서 우리의 부르심이 공동체라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다. 하지만 우리가 교육에서 진정 추구해야 할 가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 선생, 학생, 그리고 학문이 함께 감성과 이성, 영성의 모든 도구를 이용해 끊임 없이 상호작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진리를 배움으로써 삶에 진리가 배어나갈 나는 기도한다(손00학생의 2013년 6월, 16주차에 제출했던 에세이 내용 중에서).

### (3) 그룹 활동을 통해 경험한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피드백

매주 조원들과 모여서 한 주 동안 배운 내용과 앞으로 배울 내용에 대해서 토의를 해야 했다. 다양한 생각을 듣고,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이 이 수업에서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설득하거나 억압하거나 자신의 앎을 자랑하는 것은 어떤 의미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로에게 배움과 깨달음을 주기 위해 이야기 할 거리들을 찾아가고, 자신의 느낀 바를 깊이 있게 나누었다. 여전히 성적은 주어지는 것이었지만, 같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 성적을 눈 앞에 두고 레이스를 벌이는 경쟁선수로 생각되어 지진 않았다. 오히려 2인 3각 경기처럼 발을 맞추어 한 발 한 발 함께 나아간다는 느낌이 들었다.

또한, 일주일에 두 번, 수업시간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지만 진솔한 고백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자신의 개인적인 가정사부터 자신이 실수하고 감춰두고 싶었던 이야기까지 나눌 수 있었고, 눈물을 흘리는 친구들도 있었다. 만약, 서로를 경쟁자로 인식했다면, 그 누구도 경쟁하려는 마음으로 이 수업을 들었다면, 아무도 자기 내면의 이야기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모두가 통과해야 할 자신의 길을 함께 할 수 있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 가고 있었다(<좋은 수업 소개시켜줘> 공모전 김000학생 수기 중에서).

#### (4) 교수의 수업운영을 통해 경험한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피드백

교수님께서서는 해결 방법 대신 크리스천으로서 겪어나가야 할 문제들을 똑같이 고민하고, 실수했던 한 사람으로서 삶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다. 덧붙여 자신도 지금까지 계속 고민해 나가고 있으며, 두 개의 시민권 -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과 이 세상의 시민권 - 을 모두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어쩌면 스승은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부분을 먼저 보여 줌으로써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길라잡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느 다른 수업에 제출하는 보고서처럼 ‘나는’ 이나 ‘~라고 생각합니다’라는 표현들을 최대한 없애고, 제 삼 자의 이야기나 신문에 나타난 객관적 사실처럼 적으려고 노력하였다. 어느 날, 교수님께서서는 웃으면서 “페이퍼 적을 때에 너무 객관적으로 적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이 수업에선 정답이 없으니 너희들 생각을 이야기하렴”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에 나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학문에서는 객관적인 것만 추구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입이나 이론을 빌려 말하는 것이 신뢰성과 탁월성을 높인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나의 의견을 말하는 것에서 알게 모르게 멀어지고 있었다. 알고 있는 것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부족함에도 나의 생각을 드러내는 용기를 갖는 것이 학문의 바탕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이 수업이 나조차도 인지하고 있지 못했던 고정관념을 깨뜨린 것은 사실 하루만의 일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좋은 수업 소개시켜줘> 공모전 김000학생 수기 중에서).

#### (5) 현대 사회의 문제들의 고찰을 통해 경험한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피드백

깊이 있게 알아갈수록 쉽게 입이 떼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여져 있

음을 이내 알게 되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피비우스의 띠처럼 어디서부터 시작 되었으며, 어디서부터 문제 제기를 해야 할 지 막막하게 느껴졌다. 이처럼 세상은 많은 부분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으리라. 다른 친구들도 이러한 어려움을 이야기 하였다. 우리가 수업시간에 느꼈던 좌절은 뭔가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었다. 세상을 올바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좌절과 스트레스, 절망, 후회는 당연히 따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깊어져야 할 십자가일 수도 있고, 배움에 따른 대가 일 수도 있다는 생각 말이다(<좋은 수업 소개시켜줘> 공모전 김000학생 수기 중에서).

#### (6) 성적평가를 통해 경험한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피드백

이 수업에서는 한 학기 내내 나의 ‘정직성’을 시험하였다. 여러 권의 책을 원서로 봐야 하고, 책의 내용도 어렵기 때문에 성실하지 않으면 수업의 진도를 따라가기 어려웠다. 처음에는 수업 진도에 따라 책을 읽어가는 것이 나에게 양심을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는 생각보다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여러 가지 과제와 모임들이 겹쳐 있을 때,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려나기 시작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책을 읽어가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배움 그 자체에서 얻는 성취감과 기쁨이 원동력이 되어 주었고, 시험만이 나를 공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도 공부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

학교를 다니면서 같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 친구가 아닌 경쟁자로 생각될 때가 많았다. 솔직히 시험 기간에 노트를 빌려 줄 때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다른 친구가 물어서 설명해 줄 때도 나보다 혹 시험을 더 잘 보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이러한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을 마주칠 때마다 상대평가라는 시스템이나 사회에서 대학생들에게 주는 압박의 핑계를 대며 죄책감에서 벗어나고자 부단히 이유를 갖다 대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경쟁심은 외부 요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 수업이 끝나갈 때쯤 알게 되었다(<좋은 수업 소개시켜줘> 공모전 김000학생 수기 중에서).

우리가 진리의 공동체를 지향하고 경쟁을 없앴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성적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평가를 받았고, 우리의 활동수준에 대해 성적이

매겨졌다. 그리고 이에 따라 각 학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점수를 받았다. 나는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학교를 떠나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그 가치를 마음에 새기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모두 A+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의 평가는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대개 우리의 마음과 노력이 아닌, 결과와 능력에 대한 평가이다. 하지만, 내가 C학점을 받았다고 해서 진리의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포기할 것인가? 결코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는 살롬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좋은 수업 소개시켜줘> 공모전 손00학생 수기 중에서).



## 참고문헌

- Beverluis, N. H. (1971). *Christian Philosophy of Education*. Grand Rapids: National Union of Christian Schools.
- Bloom, B. S. (Ed.) (1956).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New York: David McKay.
- Groome, T. (1980).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 Malik, C. H. (1982). *A Christian Critique of the University*. Inter-Varsity Press.
- Oppewal, D. (1985). *Biblical Knowing and Teaching*. Grand Rapids: Calvin College Monographs.
- Palmer, P. (1993). *To Know As We Are Known: Education As a Spiritual Journey*. New York: HarperSanFrancisco.
- Palmer, P. (1998). *The Courage to Teach: Exploring the Inner Landscape of a Teacher's Life*. San Francisco: Jossey-Bass.
- Plantinga, C. (2002). *Engaging God's World: A Reformed Vision of Faith, Learning, and Living*. Grand Rapids. MI: Eerdmans Publishing.
- Smith, D. and Carvill, B. (2000). *The Gift of the Stranger: Faith, Hospitality, and Foreign Language Learning*. Grand Rapids. MI: Eerdmans Publishing.
- Smith, D. (2009). *Learning from the Stranger: Christian Faith and Cultural Diversity*. Grand Rapids. MI: Eerdmans Publishing.
- Smith, D. and Smith J. (Eds.) (2011). *Teaching and Christian Practices: Reshaping Faith & Learning*. Grand Rapids. MI: Eerdmans Publishing.
- Stott, J. (2006).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4<sup>th</sup> Ed.)*. Grand Rapids. MI: Zondervan.
- Van Brummelen, H. (1988). *Walking with God in the Classroom*. Seattle: Alta Vista Press.
- Van Dyk, J. (2000). *The Craft of Christian Teaching: A Classroom Journey*. Sioux Center: Dordt Press.
- Wolterstorff, N. (1980). *Educating for Responsible Action*.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 Wolterstorff, N. (2002). *Educating For Life: Reflections on Christian Teaching and Learning*. (Eds) Clarence Joldersma and Gloria Stronk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Wolterstorff, N. (2004). *Educating for Shalom: Essays on Christian Higher Education*. (Eds) Clarence Joldersma and Gloria Stronks.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김영숙 · 이지연 (2015). “영어수업에서 기독교 신앙과 가르침의 통합 시도: 공립학교 기독교영어교사 사례 연구.” 『신앙과 학문』, 20(4). 37-68.

김종국 (2012). “The Purpose Driven Life 교재를 활용한 대학교양영어 수업사례 연구.” 『신앙과 학문』, 17(2). 119-146.

이성희 (2006). “영어 교재 평가의 기독교적 재조명.” 『기독교와 어문학』, 3(1). 165-182.

좋은 수업 소개시켜줘 (2013). 한동교육시리즈 학업공모전. 한동교육개발센터.

Read, Think, Write Essay Rubric,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  
<http://www.readwritethink.org/classroom-resources/printouts/essay-rubric-30230.html>.

북미기독교학교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csionline.org/mission>.

## Abstract

# A Case Study of Teaching Christianly of a University English Reading Course

Hae-Kyeong Park (Handong Global University)

The curriculum of a Christian university has to meet the founding mission and vision of that university. Likewise, when a professor at a Christian university designs a class, the professor must keep in mind the integration between the university's founding mission and Christian teaching. This is because Christian university professors have been called to nurture their students as Christ's disciples through their teaching. When designing the course, the professor's Christian calling and worldview determine the course objectives and subsequently set the norm for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within the classroom. This study presents a case study of an English reading course to examine how faith and teaching could be integrated at a selected Christian university. The purpose of Christian teaching was defined as follows in this study: to equip students to live as a responsible and serving disciple of Christ by teaching them in an integrated manner in the domains of intellect, discernment, and praxis. The English reading course for the case study was designed based on Van Brummelen's following four components of teaching Christianly: guiding, structuring, unfolding, and enabling. Through the diverse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that were put into an integrated Christian teaching, students were impacted positively in terms of Christian worldview formation and life application. Positive influence was identified by analyzing student feedback. It is expected that the case study of integrated Christianly teaching presented in this study will serve as a useful reference material in the future for professors in Christian universities who seek to conduct teaching Christianly in their fields.

Key Words: Teaching Christianly, English reading course, Instructional design, Teaching and learning, Christian university

